

광주청년들이 말하는 ‘저출생’... “개인 삶의 질부터 높여야”

월요대화서 강기정 광주시장 대학생들과 인구문제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구유출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21일 시청에서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인 ‘Top-us’ 회원들과 인구변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최우선 순위로 꼽은 문화시설 확충과 질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생들은 ▲광주의 자랑거리와 아쉬운 점 ▲청년(인구)유출 현황과 원인 ▲저출생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사항 등 평소 자신이 생각 해온 바를 가감 없이 밝혔다.

대학생들은 인구유출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에 있다고 봤다. 지역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일자리는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서장원(동강대)씨는 “5·18 민주화운동, 세계절이 아름다운 무등산국립공원, 아시아문화전당 등 자랑스러운 유산이 많지만 2% 부족한 광주다”며 “광주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갈 곳도 놀 곳도 제대로 돼있지 않고 일자리도 없어 많은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놀이공원, 5성급 호텔 등 광주에도 불거리와 놀거리가 있다면 노잼(재미없는)도시 광주에서 유젠(재미있는)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고 자연스레 인구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나영(동강대)씨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출산·양육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2명 이상이 아닌 1명의 아이부터 지원하는 정책을 비롯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등 직장 환경 개선이 필요하

다”고 전했다.

끝으로 강기정 시장은 “청년들은 문화시설, 주거 안정, 질 좋은 일자리, 직장 내 인식 개선 등 사회적 환경을 먼저 바꿔주길 바라고 있다”며 “주로 50대 이상이 정책결정권자이다보니 2030청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우선순위에 밀릴 때가 있다. 빅데이터에 근거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새로운 광주, 활력 넘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Top-us’의 ‘우리의 다짐! 더하고 덜하기’ 캠페인도 진행됐다.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함께 육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 등을 담은 카드를 작성하고 인증사진을 찍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광주대학교 강하은·박윤아·김정서·김다빈 학생, 동강대학교 강희민·김진희·박나영·서장원 학생, 이경미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 지회 과장, 임선주 광주일가정양립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1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Top-Us) 회원들과 광주 인구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더하고 덜하기’ 캠페인 문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원본부 직장복지지원팀장,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

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한편 광주시는 ‘출생에서 성장까지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12월까지 광주아이킴 플랫폼

폼 돌봄지도 단계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별 거주지별 돌봄지도 제공 등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정보(돌봄시설·공동체·서비스 등)를 통합 제공한다. /이유빈 기자

전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전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겨울철새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12월 15일까지 위험주의보를 발령, 민·관 합동으로 농장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최근 가금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겨울철새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12월 15일까지 4주간 위험주의보를 발령, 민·관 합동으로 농장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일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영암호, 순천만, 고천암호, 강진만 등 35개 철새도래지에서 겨울철새 73종 20만 6천 마리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6만 2천 마리)보다 3

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주요 축종인 오리와 조류는 16만 6천 마리로 지난달(3만 4천 마리)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지역 산란계·종오리농장 등 산란가금 사육농장 144호에 대해 12월 9일까지 일제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전담공무원 825명과 전화예찰요원 30명을 활용해 매일 농가에 육성으로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가금 생산자단체와 가금계열사에서도 회원농가와 계약농장에 대해 방역수칙 홍보와 준수 여부를 매일 전화 조사하고 2주에 1회 현장 방문해 확인에 나선다.

그동안 전남도는 농가 주도 차단방역을 위해 297억을 들여 방역시설을 보강하고, 지난 10월 말 도지사 서한문에 이어 지난 16일 담화문을 발표해 가금농장에서 핵심 차단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민·관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 10월 도와 계열사, 생산자단체와 상생협약도 했다. /윤규진 기자

전도현 전남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염원이 사람과 차량을 통해 농장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주의 핵심 차단방역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며 “폐사율 증가와 산란율 감소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적으로 경기 3, 강원 1, 충북 9,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2 등 7개 도 가금농가에서 1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남은 장흥 육용오리농장에서 1건 발생했다. /윤규진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